

창업 지원·일자리 제공... '청년 찾는 목포 만들기' 잔걸음

스마트 그린·세라믹 산단 창업자 저렴하게 임대...세제 등 혜택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 건립 창업 서비스...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목포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청년 친화형 4차 산업을 정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가 추진중인 산업은 약 20만평 규모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및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세라믹산단 내 청년임대주택 조성, 4차 산업 활용 청년창업지원과 일자리 정착 사업 등이다.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사업은 4차 유망산업과 제조업 등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신규성장동

력을 확보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후 타당성 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청년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산단 일부 용지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로 운영하고 다양한 세제혜택과 기업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겠다는 포부다.

260여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인프라 기반의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입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혁신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예비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청년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해 배출된 예비창업자들의 소자본 창업동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목포세라믹산단의 경우 지난 2014년 준공 이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대상 18필지가운데 8개 필지가 분양 완료되고 10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시에서는 활용방안을 강구, 전체 미분양필지 중 7개 필지를 수요가 높은 900㎡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분할해 지역 청년 기업가를 위해 임대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업종도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기존 7개 업종 외 정보서비스와 의료, 교육, 드론 등 4차 산업 업종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분양가의 1%로 책정하는 한편 최초 5년 의무 임대 계약 후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최초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목포시는 스마트인재개발원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목포시는 최적화된 스마트 정책과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학생들과 청년을 위한 학습·취업·창업·역량강화 지원,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비를 들여 청년층의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도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로봇·인공지능·드론 등 4차 유망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로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맨발로 걷는 섬 숲길...신안군 전국 최장 14km 어싱길 조성

지도 자동리서 점암선착장까지 7월 3.4km 개통 후 2026년 완공

'1004 섬' 신안군에 전국 최대의 어싱(Earthing·맨발) 길이 들어선다. 신안군이 지도읍 자동리에서 점암선착장까지 조성할 어싱길은 무려 14km에 이른다. 오는 7월 3.4km를 먼저 개통하고 2026년까지 14km를 완료할 계획이다. 맨발로 걷는 어싱길은 신안의 질 좋은 황토로 두껍게 쌓아 올려 걷기 좋게 닦아준다. 폭은 2~2.5m다. 출발 지점에 신발 보관장과 세족장을, 500m마다에도 발을 씻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세족장을 만들 예정이다. 어싱길 양쪽에는 신안군 지도읍 대표 수종인 나한송과 붓대래아꽃을 심어 시원한 그늘 속에서 꽃을 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유 신안군 정원산업 팀장은 "어싱길에 심어질 나한송은 편백보다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온다"며 "몸에 쌓인 활성산소 배출을 돕는 맨발걷기를 곁들이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자랑했다.



신안군이 지도읍 자동리에서 점암선착장까지 14km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국내 최장 어싱길을 조성한다. 조성 중인 어싱길. <신안군 제공>

어싱길 바로 옆에는 자전거길도 함께 만든다. 올해 사업비는 50억원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연에 몸을 맡겨 질병을 이겨낸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어싱을 위해 명품 맨발길을 만들기로 했다"며 "자연과 함께하는 지도읍을 시작으로 신안 어싱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es@kwangju.co.kr

초중고 10만원·대학 100만원 입학 축하금

무안군 지급 대상 대학까지 확대

무안군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복지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무안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1인당 10만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초·중·고 신입생과 대학 신입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 신입생 1인당 10만원, 대학 신입생은 1인당 10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 입학생과 대학 입학년도 1월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

생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신청 방법은 초·중·고생은 부모(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악·오룡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남악 주민의 경우 남악주민복지센터, 오룡 주민의 경우 오룡현장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현장에서 축하금을 즉시 지급한다. 김산 군수는 "우리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학 축하를 위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며 "교육복지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진도군이 필리핀 자치단체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 우홍섭 진도군 부군수는 지난달 말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를 찾아 혼 바르톨로메 엔 리베라 시장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산마테오시가 선발한 인력은 농업 적응 훈련을 받고, 진도지역 농어가에 배치된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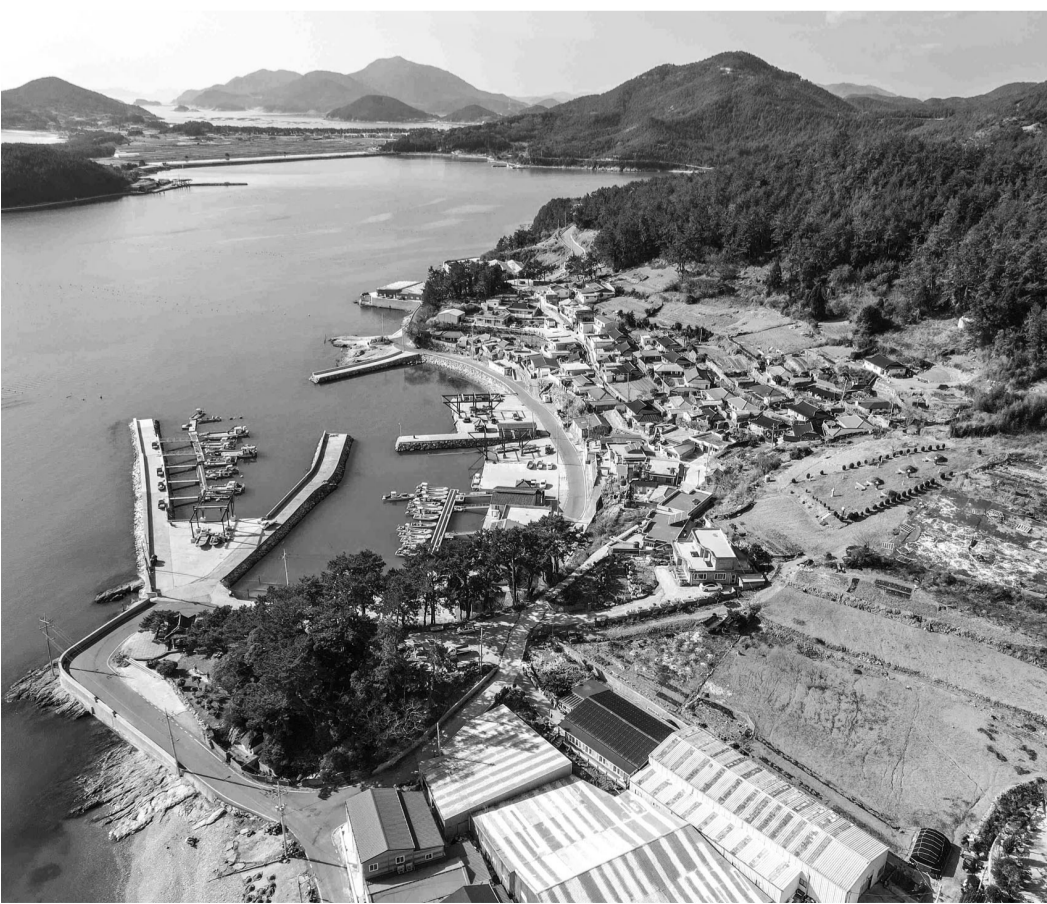
진도군과 필리핀 산마테오시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체가 도입 주체가 된다. 진도군에 올해 상반기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농업 134명, 어업 143명 총 277명이다. 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해 파종과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가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 등에게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와 경제·문화 등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 공항마을 20억원 투입 생활여건 개선...균발위 공모 선정

2026년까지 안길·빈집 정비

완도군 금일읍 공항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완도군은 2026년까지 공항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공항마을은 앞으로 4년 동안 마을 안길과 공동 생활시설, 빈집을 정비한다. 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주민을 위한 차대 예방·건강 체조 등 건강지원 사업도 보인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 공항마을은 전남도 사전 평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면 평가를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마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공항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오는 2026년까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벌이는 완도군 금일읍 공항마을 전경. <완도군 제공>



주민 자원순환 체험에 참여한 해남군민들이 행사 참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탄소중립 실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해남군 다양한 포인트제 운영

해남군이 탄소중립 실천 군민들에게 포인트를 보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탄소중립 포인트는 분야별 이행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근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감축률이 5% 이상이면 연간 최대 1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금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에너지 감

축률이 3% 이상인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신규 가입 1000가구에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전자영수증 발급,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에 따라 최대 인센티브(현금)는 7만원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쉽고, 보람있게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백희성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스톨푸드존 운영자 모집

목포시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이하 해관)의 스톨푸드존 운영자를 모집한다. 목포시는 해관이 다채롭고 재미진 목포의 맛을 알릴 수 있도록 스톨푸드존 메뉴 구성을 다양화했다. 그동안에는 목포 9미 식재료 중심으로 메뉴 구성을 제한하고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목포 9미 이외의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메뉴 구성은 물론 각양각색의 디저트와 간식을 판매할 수 있으며, 목포시를 대표하는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다. 스톨푸드존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월 28

일까지 목포시청 관광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후 2년 동안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음식과 목포 주전부리 3종 세트, 디저트 및 음료(차, 커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관을 목포의 맛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